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두루와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 잘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평과 두루도 잘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7년에도 '한 뼉' 더 성장하였습니다.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자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일상적인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들,

지뢰 사고로 평생 고통을 받았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와 그 유족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온갖 법률리스크에 노출된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걷고, 함께 뛰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두루는 앞으로도 이 세상 모두가 '두루'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힘을 내어 될 것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당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당신, 잘 계신가요?

“ Si vales bene est, ego valeo.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Si vales bene, valeo.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한동일, (라틴어 수업)

2017년
두루를
후원해주신
분들

법무법인 지평 강민제 강성국 강영주 강원일 강울리 강정은
고기승 곽은비 구나영 구상수 구자형 권영환 권창영 김다희
김무자 김병률 김병선 김상준 김석동 김선국 김성수 김승현
김영문 김영수 김옥림 김용길 김용진 김윤희 김이태 김재원
김중윤 김지형 김지홍 김진권 김진희 김태형 김판수 마상미
민창욱 박경택 박근배 박보영 박상배 박성철 박영주 박준석
박지선 박호경 반기일 반정현 배성진 백종현 사봉관 서도원
서문용채 성보성 손계준 손수현 송한사 신승기 신중길 심희정
안상훈 양영태 여연심 오자성 유정환 윤석호 윤성후 윤영규
윤재민 이공현 이공형 이광선 이병주 이상희 이소영 이승민
이승현 이은영 이종인 이종현 이주언 이준길 이춘원 이태현
이행규 이해은 이홍재 이 훈 임성택 임이지 임혜정 장 성
장윤정 장 품 장항석 정 원 정정태 정 진 정 철 채희석
최명지 최세훈 최승수 최정규 최정묵 최진숙 최초록 한승혁
한철웅 황인영

두루 FUN-딩

후원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

140-010-878456

(예금주 :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02-6200-1853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스승의 날을 기리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의 따뜻한 인연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두루 펀딩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두루 펀딩, 어떤가요?

두루
기부자
인터뷰

평소 두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두루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바쁘
게 일하다 보면 점차 실천하는데 힘들어지잖아요.
두루는 지평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DNA 같은 존
재예요. 두루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만큼, 지평과
두루의 관계도 더욱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두루 변호사에게 소고기를

꼭 사주고 싶다는

정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두루에 생일 펀딩과
스승의 날 펀딩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평의 박보영 변호사가 저에게 생일 펀딩을 해줬었
는데, 다른 선물에 비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
실 생일 펀딩이라는 게 진짜 실물을 받는 건 아니잖아
요(웃음). 그럼에도 생일 펀딩을 받고 나서 꽤 오랫동안
안 여운이 남고, 두고두고 기분이 좋아서 저도 생일
펀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건
설부동산팀 후배들 생일 때에는 꼭 생일 펀딩을 해
줄 생각입니다. 두루에서 후배들 생일 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형 대표님께서 제 연수원 스승님이시라 매년 선
물을 드렸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생일 펀딩을 받
았던 시기랑 비슷했어요. 대표님이 두루 이사장이시
기도 해서 스승의 날 펀딩을 하면 다른 선물보다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
니다. 대표님도 좋아하시고, 같이 선물을 준비한 동
기들도 좋게 받아들여 줘서 더욱 좋았습니다.

두루 기부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세요.

두루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급여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청빈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두루 변호사들이 지평과 같이 더 많이 일하고, 함께
하려면 펀딩을 더 많이 받아서라도 급여를 현실화하
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펀딩을 더 자주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